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 [0] 목차

- [01] 고을사 저 꽃이어~ (안민영): 02p
- [02] 피뿔피뿔 우는 소리에~ (오경화): 02p
- [03]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대농부음) (이규보): 03p
- [04] 원가 (신충): 04p
- [05] 진중음 (이순신): 04p
- [06] 만전춘별사 (작자 미상): 05p
- [07] 내 영혼 술에 섞여~ (김삼현): 05p
- [08] 창밖에 가마솔 배우라는 장사~ (작자 미상): 06p
- [09] 월곡답가 (정훈): 7p
- [10]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 8p
- [11] 요일월 순진곤은~ (김천택): 8p
- [12] 대장부 공 이루고~ (작자 미상): 9p
- [13]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원천석): 9p
- [14]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작자 미상): 10p
- [15]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이정보): 10p
- [16] 면양정가 (송순): 11p
- [17] 사친가 (작자 미상): 12p
- [18] 속사미인곡 (이진유): 13p
- [19] 몽금포 타령 (작자 미상): 19p
- [20] 어부별곡 (이중경): 17p
- [21] 유산가 (작자 미상): 18p
- [22] 백석정별곡 (신교): 19p
- [23] 성패관천운 (김상헌): 20p
- [24] 정치관군동 (최명길): 20p
- [25] 산민 (김창협): 21p
- [26] 함강정가 (작자 미상): 22p
- [27] 계녀가 (작자 미상): 24p
- [28] 규원가 (허난설헌): 28p
- [29] 목동가 (임유후): 29p
- [30] 풍계육가 (이정): 32p
- [31] 만홍 (윤선도): 33p
- [32] 규수상사곡 (작자 미상): 34p
- [33] 임 그린 상사몽이~ (작자 미상): 35p
- [34] 지수성가 (김득연): 36p
- [35] 안민가 (충담사): 36p

[0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13p]

고올사 저 꽃이여 반(半)만 아원 저 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춘풍에 향기 좇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 안민영 -

[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13p]

피골피골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아들 글을 읽고 며늘아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때마침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 오경화 -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13p]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帶雨鋤禾伏畝中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라만      形容醜黑豈人容  
왕손 공자들이 더 이상 알보지 마오      王孫公子休輕侮  
그대들의 부귀 호사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富貴豪奢出自農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新穀靑猶在畝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세      縣胥官吏已徵租  
힘써서 경작하여 나라 부유케 한 건 우리들이거늘      力耕富國關吾輩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何苦相侵剝及膚

- 이규보 -

[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46p]

질(質) 좋은 것이	物叱好支栢史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며,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너를 중(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汝於多支行齊教因隱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에여.	仰頓隱面矣改衣賜平隱冬矣也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갖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兒史沙叱望阿乃
세상 모든 것 여희어 버린 처지(處地)여.	世理都 之叱逸鳥隱第也
	(後句亡)
	- 신중, 「원가」 -

[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46p]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水國秋風夜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愴然獨坐危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太平復何日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大亂屬茲時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業是千人詆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名猶四海知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邊憂如可定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 읊으리	應賦去來辭
	- 이순신, 「진중음」 -

\* 귀거래사: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드러냄.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48p]

얼음 위에 맺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둔 오늘 밤 더디 새오리라 더디 새오리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임을 한테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沼)에 자러 오느냐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 소춘풍: 봄바람을 희롱함.
- \* 벼기더시니: 우기시던 이가. 또는 어기신 이가.

[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48p]

내 영혼 술에 섞여 임의 속에 흘러들어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닐망정  
날 잊고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 김삼현 -

[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48p]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이별 나는 구명도 때우는가  
장사의 대답하는 말이 진시황 한 무제는 천지를 호령하되  
위엄으로 못 막고 제갈량의 천하 경영하는 재주로도 막았다는  
말 못 들었고 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이 구명 때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을진대 긴 이별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록 051p]

옛 사람 이제 사람 이목구비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고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그 내 벗인가 하노라

<제1수>

내 양자 하 험하니 비누 성적 아니 하네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니거든  
엇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제2수>

거기서 유신하면 나 혼자 무신할까  
백년 전의란 둘이 다 민사이다  
세상운우 인정이야 배울 줄 있으랴

<제3수>

청승으로 울을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르고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홍중에 진님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오 구름 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제5수>

달이 밝은 제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제6수>

피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성 없다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제7수>

여기서 그리는 뜻을 저기서 아니 모르는가  
무던히 고운 님 덧없이 여의울 듯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제8수>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냇이 가리런가  
좃을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들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얼핏이 보아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제10수>

- 정훈, 「월곡답가」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53p]

두류선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옌가 하노라

- 조식 -

\* 산영: 산의 그림자.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53p]

요(堯)일월 순(舜)진곤은 옛날대로 있건마는  
 세상 인사는 어이 저리 달랐는고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 김천택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53p]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임천에 초당 짓고 만권 서책 옆에 쌓고 천금준마 솔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 시켜 밭 갈리고 절대가인 옆에 두고  
 금준\*의 술을 부어 벽오동 거문고 새 줄 엮어 무릎에 얹고 남  
 풍시 화답하여 강구연월\*에 누웠으니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금준: 금으로 만든 술통.  
 \* 강구연월: 변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  
 또는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또는 태평한 세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55p]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뒤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쏘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 -

\*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55p]

연(蓮)꽃에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테  
 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듯던고  
 앞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들듯 하더라

- 작자 미상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55p]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칠푼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칠푼이 남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  
 칭 외오 풀어 옹게 감아 엮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  
 도 빈틈없이 찬찬 굵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晝夜長常) 뒤  
 틀어져 감겨 있어

동(冬) 선달 바람 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라

- 이정보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58p]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펼쳐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없었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를 없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음이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회지 말든지  
 쌍룡이 뒤흔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잇는 듯 숨겨니 띄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느니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석양과 석이여 가랑비마저 뿌리네  
 가마를 급히 타고 술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녹양에 우는 피꼬리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펴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견힌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쳤는가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 현사하여 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벌였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쓸려노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라  
 다만 한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  
 부르며 타이며 헐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곱혔다가 젓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강산 풍월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냐  
 이 몸이 이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송순, 「면양정가」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63p]

정월이라 십오 일에 달구경하는 소년들이  
 흉풍(凶豊)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하라  
 신체발부 사대절\*을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해같이 깊은 정을  
 어이하여 잊으리오 천세 만세 믿었더니  
 봉래 방장 영주산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인력(人力)으로 얻을쏜가 슬프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재라\*  
 공산낙목 한 줌 흙 되어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일일 사친(事親) 십이시라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 소식이 영영 끊기니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니 이월이라 한식일에  
 천추절\*이 적막하다 개자추\*의 녀이로다  
 원산에 봄이 드니 불탄 풀에 속일 난다  
 후인들이 슬퍼하여 한식을 지었도다  
 당우삼대 성제들도 승피백운 하셨도다\*  
 여산 송백 무릉 춘초(春草)는 만고영웅 일과처\*라  
 무서산지 퇴일하니\* 이영백의 사정(私情)\*이오  
 태행산 외로운 구름 보니 적인결\*의 생각이라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그달 그름 다 지나고 삼월이라 삼짇날에  
 제비 새끼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호랑나비 분분하여 옛빛을 자랑한다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며  
 동쪽 언덕 올라 휘파람 불고 청류 이르러 시 짓는다  
 산화(산화)는 붉은 비단이오 세류(細柳)는 푸른 실이로다  
 춘가에 농부들은 신춘(新春)을 만났다고  
 농구(農具)를 둘러메고 처처(處處)에 왕래하며  
 백마금편 소년들은 화류춘풍 흥을 겨워  
 쌍을 지어 노닐 적에 산화 작작(灼灼) 난만개라  
 슬프도다 세월이어  
 애오생지가련(哀吾生之可憐)하니 탄광음지어류(嘆光陰之如流)  
 로다\*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담청절\*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남풍지훈혜(南風之薰兮)하고 해오민지온혜(解吾民之慍兮)로다\*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 앉아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에 하도(河圖) 낙서(洛書)\* 나왔단 말인가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를 오늘날에 보리로다  
 요지일월 순지진곤\* 태평성대 이 아닌가  
 만사(萬事) 인간 젊은 날에 소년행락 얼마하리  
 타기황앵 아이들은 막고지상 우지 마라\*  
 황금갓옷 펼쳐입고 실버들 속 들어갈 때  
 우레같이 소리 질러 겨우 든 잠 깨어 보니  
 장안 많은 집 등을 달아 산호만세\* 하는구나  
 슬프구나 우리 부모 관등절\*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오월이라 단오일에  
 해는 늦어 창밖에 있으니 여름 구름은 기봉(奇峯)에 맑구나  
 산양 자규\* 우는구나  
 광풍제월\* 넓은 곳에 솔개 날고 물고기 뛰노는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잠을 내 아니라  
 일신이 한가하길로 너와 놀자 찾았노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 아니 넉넉한가  
 일촌간장 맺힌 설움 부모 생각뿐이로다  
 옥창(玉窓) 앵두 붉었으니 원정부지이별(怨征夫之離別)\*이오  
 몽중(夢中) 매화 피었으니 음풍진어영욕(吟風塵於榮辱)\*이오  
 남린 복사\* 보리타작 방방곡곡 농부가로다  
 송백양류 진진 나무에 높다랗게 그네 매고  
 녹의홍상 미인들은 오락가락하는구나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단오절을 모르시나

- 작자 미상, 「사친가」 -

- \* 신체발부 사대절: 신체발부는 몸과 머리털과 피부라는 뜻으로 몸 전체를 이르고, 사대절은 '사지' 즉 두 팔과 두 다리를 말함.
- \* 수욕정이~친부재라: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나 부모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도다.'라는 뜻.
- \* 천추절: 임금의 탄신일을 경축하던 국경일.
- \* 개자추: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의 충신. 한식을 두고 개자추가 죽은 날이라 이름.
- \* 당우삼대~하셨도다: 요순과 하은주 삼대 훌륭한 임금들도 흰 구름 타고 오르셨도다.
- \* 일과처: 한 번 지나간 곳.
- \* 무서산지 퇴일하니: 서산으로 해가 넘어감을 쓸쓸히 여기니.
- \* 이영백의 사정: 이영백의 사사로운 정. 이영백은 중국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극한 효성으로 이름이 높았음.
- \* 적인결: 중국 당나라의 명신. 뛰어난 행정력과 공평정대함으로 나라의 기틀을 유지함.
- \* 애오생지~여류로다: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하고,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음을 탄식한다.'라는 뜻임.
- \* 담청절: 삼짇날의 별칭. 들에 나가 피랴게 난 풀을 밟는 풍습이 있음.
- \* 남풍지~온혜로다: '남풍이 따스하고 향기로워 우리 백성들의 노여움을 풀어 주도다.'라는 뜻. 순임금이 노래한 남풍시를 묘사한 말임.
- \* 하도 낙서: 하도는 황하에서 용마가 지고 나왔다는 쑤다섯 점의 그림을, 낙서는 낙수에서 신귀의 등에 있었다고 하는 마흔다섯 점의 글씨를 이름.
- \* 경성가: 경사(慶事)의 노래. 경성은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길성(吉星)을 뜻함.
- \* 요지일월 순지진곤: 요임금이 다스리던 때의 해와 달이요, 순임금이 다스리던 때의 하늘과 땅. 태평성대를 이름.
- \* 타기황앵~우지 마라: 차용된 한시 원문은 '피꼬리를 쫓아 버리세요 / 가지 위에서 울지 못하게 하세요'라는 뜻임.
- \* 산호만세: 임금이 산과 같이 장수하기를 바라며 부르는 만세.
- \* 관등절: 석가모니 탄생일인 음력 4월 초파일. 지붕 위 간두에 식구 수대로 초롱을 달고 관등놀이를 하며 관등연을 배움.
- \* 산양 자규: 산 양지 녀의 소쩍새.
- \* 광풍제월: 맑은 날씨에 부는 바람과 활짝 갠 날 밤에 뜨는 달.
- \* 원정부지이별: 싸움터에 나가는 지아비와의 이별을 원망함.
- \* 음풍진어영욕: 영광과 욕됨을 노래함.
- \* 남린 복사: 남북의 이웃집들.

[18-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67p]

삼 년을 입을 떠나 해도(海島)에 유배되니  
 내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임이 언제 박정(薄情)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못 여자рода  
 유한(幽閒)한 이내 몸을 선음(善飲)한다 이르로세\*  
 서하(西河)에서 잠시 쉬고 수레 타고 돌아오니  
 봉황성에 다다르니 고국 소식 놀랍구나  
 황혼녘에 옛 약속을 다시 거의 찾았으나  
 모함이 망극하니 임이신들 어이할까  
 저자에 호랑이 있다 의심하게 말 만들고  
 증모는 거짓말에 배틀을 던졌음이라  
 우리 임 날 믿는 것을 세상에 누 비할까  
 비방하는 문서들은 상자 속에 가득 두고  
 함정에서 건져 내어 좋은 땅에 귀양 보내니  
 구연성에서 노숙하고 압록강을 바삐 건너  
 성초에서 내려지고 초교에 몸을 실어  
 청천강 삼일우에 옷이 다 젖었으니  
 별쁜 밤에 빨리 달려 쾌수를 건너올새  
 세상의 기쁜 소식 어디가선 들었구나  
 서울 근처로 압송함은 고금에 첫 일ियो,  
 아들과 조카에게 관직을 내리시니  
 특별한 은혜가 거듭되었구나  
 박명한 이 내 몸에 임의 은혜 이려하니  
 여관의 흐릿한 등불에 피눈물이 절로 난다  
 금오리 김택기를 벽제에서 만나보고  
 선산에 잠깐 들러 통곡하여 이별하고  
 성 서쪽의 옛집의 사당을 하직하니  
 가깝고 먼 친척들과 손잡고 이별할 새  
 함께 하던 옛 친구들은 눈앞에 드물도다  
 가는 길이 험하여 여유가 없으니  
 잠시인들 오래 머물 것이런가  
 관악산 십 리쯤의 선산에서 하루 쉬고  
 천릿길 행장을 급하게 차려갈 새  
 종남산을 바라보니 오색구름 아름답고  
 의릉을 바라보니 술 잣나무 푸르구나  
 외로운 신하 원통한 눈물 한강에 가득 뿌려  
 임 향한 한조각 마음 참고 참아 떠나가니  
 내 마음 이려할 제 임인신들 잇을 손가  
 호남길 가려 잡아 노령에 올라 쉬어  
 북쪽을 돌아보고 두세 번 탄식하니  
 뜰구름이 하늘 막아 서울 땅을 못 보겠다  
 금성산 바라보고 귀양지에 찾아가니  
 남도의 큰 마을 낙토(樂土)를 처음 보네  
 주인 정사군이 마주 나와 반겨하니  
 거처도 과분하고 의식도 염려 없다  
 그물처럼 벗겨진 몸 이곳에서 편히 쉬니  
 갈수록 임의 은혜 곳곳마다 망극하다

재상들은 나를 죽이려 하려는지  
 재앙을 일으키려 티격티격 다투으니  
 큰 형벌이 내려질 듯 아침저녁 위급할새  
 먼 섬으로 유배 보내 가시나무 둘러치고  
 여러 사람 노여움을 막으시니  
 끝내 간곡하심을 오늘 더욱 알겠노라  
 사방으로 힘을 쏟은 신하된 자 직분이라  
 봉사하는 작은 수고 말할 것이 전혀 없다  
 안팎으로 베푼 은혜 천자보다 빛나시니  
 죄가 도리어 영화 되니 이 더욱 다행이라  
 고운 얼굴 없는 나요, 재주도 없는 나를  
 무엇을 취하시며 무엇을 중히 여겨  
 말마다 너그럽고, 일마다 보호하셔  
 불품없는 이 한 몸 다칠까 염려하시니  
 엇그제 만난 임이 마음은 오래된 듯  
 임의 뜻 나 모르고 내 뜻 임 모르며  
 무슨 일 이토록 잊히지 않음이 간곡하고  
 백년을 해로한들 이보다 더하겠나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선음한다 이르로세 : 음란한 짓을 잘한다고 이르는구나. 굴원의 「이 소」에서 비롯한 표현으로 소인배가 군자를 모함함을 뜻함.

[18-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67p]

임의 은혜 이럴수록 미워함이 더 심하여  
 많고 많은 해도(海島) 중에 가장 먼 곳 골라내어  
 한평생 고통스런 추자도(楸子島)를 처음 여니  
 가족도 두려워하는데 남이야 이를 손가  
 행장을 다 차리고 금부도사 기다릴새  
 어찌하여 우리 아우 금릉에 귀양하니  
 가문 운이 짝 막히고 가문 화도 첩첩하다  
 월남촌 가을밤에 다시 만나자 이별하며  
 타향에서 배개를 마주하고 누웠으니  
 이 또한 임의 은혜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게 됨은  
 심한 천둥과 다를 손가  
 이진 항구에서 배와 샷대 정돈하여  
 동풍이 건듯 불 때 쌍돛을 높이 다니  
 푸른 파도 아득하며 물 밖은 하늘이네  
 외로운 섬 가리키니 겨우 바둑돌이라  
 바야흐로 깊은 밤에 광풍이 하늘에 닿아  
 바다에서 키를 잃고 호흡이 위태할새  
 선장은 속수무책 배 안에서 실색하니  
 아득한 이내 몸이 죽고 산들 관계하랴  
 다시 살게 하신 임의 은혜인데  
 중간에서 헛되이 돌아가랴  
 책망을 달게 받으려던 모든 소원  
 오늘날 이루려고  
 경사를 암송하고 옛사람을 생각하니  
 부강에서 살았던 정숙자는  
 정성과 공경으로 깨달아서 힘을 얻고  
 청회의 장자방은 충신으로 힘입었으니  
 평생을 점검하니 이 공부 남지 않았네  
 채석에서 달을 잡던 이적선과 함께 놀 듯  
 상수에서 투신하던 굴삼여를 거의 볼 듯  
 배 창문에 의지하여 옷깃을 바로 하고  
 천명을 기다릴새  
 한 조각 나무 얻어 연장으로 고쳤더니  
 위험이 편안해지니 잠시 사이로다  
 죽고 삶이 명에 있고 화복(禍福)은 하늘에 있어  
 오늘날 살아남은 우리 임이 도우신가  
 동쪽이 밝아오매 소리하고 돛을 내려  
 석기에 배를 매고 섬 가운데 들어가니  
 마을이 쓸쓸하니 수십 호 여가로다  
 비바람 무릅쓰고 초라한 집 찾아드니  
 지붕은 다 날리고 대창에 창호지 없고  
 평상은 모두 젖어 마른 데 전혀 없다  
 한 말 크기 좁은 방에 이와 벼룩 많을시고  
 팔 척의 큰 키가 굵어 들고 굵어 나며  
 다리를 세워 누워 긴 밤을 새우나니  
 배 안에서 젖은 의복 어느 불에 말리오며

일행이 굶주린들 무엇으로 구할 손가  
 행탁(行橐)을 털어내니 쌀 몇 말뿐이로다  
 흰 죽을 쑤어내어 둘러앉아 요기하고  
 복물(卜物)도 도착하기 밤낮으로 바라더니  
 남은 액이 다하지 않아 바다에서 실패하니  
 죽을 고비 만 번 넘겨 살아남아 다행하나  
 살 방법에 대책 없으니 어이하여 지행하고  
 열 길이나 가지 울타리 사면에 둘러치고  
 북쪽에 구멍 두어 물길을 겨우 내니  
 아득히 높고 먼 하늘 우물에서 바라보듯  
 밤낮으로 들리나니 바닷물결 급한 바람  
 아침저녁 일어나니 독한 안개 거친 비라  
 살 곳을 정하지 못해 두 조각을 이별할새  
 장부의 한 조각 간장을 태우나니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을 금할 소냐  
 남관에서 손자와 이별하던  
 한유의 모습이요,  
 월강에서 아우를 보내던  
 유종원의 회포로다  
 암송관이 이별하며 임 계신 데 돌아가니  
 염려되던 충성심이 다시금 새로워라  
 가을이 점점 깊고 객의 회포 쓸쓸한데  
 송옥의 비추부를 초성(草聲)으로 높이 읊고  
 유씨 박씨 두 손님을 근심으로 상대하여  
 무릎이나 겨우 움직일 몇 칸의 작은 집을  
 처음으로 집 짓고자 다스릴 새  
 섬 안의 모든 백성 진심으로 일을 끝내니  
 흙 이기고 기와 나르던 창화현(昌化縣)의 풍속이라  
 격식은 못 갖춰어도 거처는 깨끗하다  
 몸을 맘대로 움직임이 이제야 편안하다  
 감군은(感君恩) 세 글자를 벽 위에 크게 쓰고  
 망미현(望美軒) 글자가 있는 마루를 섬 안에서 뉘 모르리  
 종일 문을 닫아걸고 주자학 책 펼쳐보니  
 이치가 무궁함을 늙게야 깨달았다  
 새와 까치 본 데 없고 까마귀 솔개 지저귀며  
 흉하게 생긴 얼굴 어부들을 만나보니  
 들사슴의 성정이요, 오랑캐 말소리로다  
 상대하기 답답하니 무슨 말로 수작할꼬

- 이진유, 「속사미인곡」 -

[18-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67p]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양식도 꺾질(乏絶)커늘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도 못 먹거든 어육(魚肉)이야 바랄쏘냐  
 섬 안 수십 리에 일년초가 희한하다  
 조석(朝夕) 밤도 못 익힐 제 방이 덥기 생각할까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쭈어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읊었으니  
 어와 이 물골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춘풍 도리화(春風桃李花)야 못 본다고 상관하라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낙모가절(落帽佳節)\*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굴원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파리 떼와 모기떼는 백 가지로 쏘아 제치고  
 뱀과 전갈, 지네는 네 벽에 마구 기어다니다니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 없고 백악(百惡)만 구비(具備)하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을 두르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오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구호할 이 누가 있으며  
 반계(盤溪)에 있는 내 집 비어 있는들 누가 지킬꼬  
 하사받은 천 권의 책 고각(高閣)에 묵혀 있으니  
 좀벌레 다 먹은들 그 누구라서 포쇄\*하며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 버린들 누가 금할꼬  
 천하에 죄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주 문왕이 기산 다스릴 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시운(시운)이 불행하여 천 리에 떠나시니  
 내 신세 외로운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로되  
 근본을 생각하면 입 위한 정사일세  
 일월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굶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白頭吟)\*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長門賦)\*를 어이 사리  
 마름과 연(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상자 안에 두어신들 늘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碧海)를 밟아 건너  
 옥루(玉樓)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셔  
 일당우불(一堂吁佛)에 수답(酬答)이 여향(如響)하니\*  
 앞에서 귀신을 물든 가태부(賈太傅) 이러한가\*

어촌의 먼 닭 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 옥음(玉音)은 귓가에 완연(宛然)하고  
 우리 임 어로향(御爐香)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 염장: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
- \* 솥국: 고기를 넣지 않고 끓인 국.
- \* 낙모가절: 중국 진나라 때 인물인 맹가가 중앙절(음력 9월 9일)에 국화주에 취해 모자가 떨어진 것도 몰랐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이를 조롱하는 글을 써 보이니 그 글에 화답하는 멋진 글을 지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
- \* 굴원이~먹을꼬: 영광과 욕됨을 노래함.
- \* 포쇄: 찢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에 쏘고 별에 바람.
- \* 백두음: 중국 한 무제 때 문인인 사마상여가 첩을 들이려 하자 그의 아내 탁문군이 원망의 마음을 담아 써 보낸 시로, 이 시를 읽은 사마상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첩을 들이지 않았다고 함.
- \* 장문부: 중국 한 무제의 비인 진 황후가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이 글을 짓게 해 황제의 총애를 회복했다고 함.
- \* 일당우불에~여향하니: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임.
- \* 앞에서~이러한가: 모함을 받아 변방에 좌천되었던 가태부를 효문제가 불러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 논했던 일을 말함.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71p]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임 만나 보겠네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말고요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소래\*

(중략)

바다에 흰 돛은 쌍쌍이 조어나  
외로운 사랑엔 눈물만 겨워라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눈물만 겨워라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 불고요  
푸른 솔가지엔 두루미 앉았네

장산곶 마루에 새 소식 들리니  
원포귀범에 정든 임 오셨네

무정한 우리 임 말없이 가더니  
봉죽을 받고서\* 돌아를 오셨네

임 실러 갈 적엔 반돛을 달고요  
임 신고 올 적엔 온 돛을 단다네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 온다네

가는 임 야속타 속태우지 말고요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 작자 미상, 「몽금포 타령」 -

\* 바람새: 바람이 부는 형세.

\*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소래: 몽금포, 개암포 들렀다 가세요.

\* 봉죽을 받고서: 고기를 가득 잡아 만선이 된 것을 황해도에서는 '봉죽을 받았다'라고 표현함. '봉죽'은 배에 다는 대나무 깃대를 뜻함.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72p]

아이고 애들올샤 아이고 설올세고  
 망극(罔極)한 천지(天地)에 내 혼자 사라 이서  
 네 있던 어채(魚菜)를 보니 내 안 둘 디 업세라

<제1수>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서를 일삼도다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  
 물외의 풍월강산이 내 분인가 하노라

<제2수>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  
 옳거나 외거나 나도 내 일 모르노라  
 세상이 시비를 마라 어부 무삼 그르리

<제3수>

경륜을 내 알더냐 제세할 이 없을러냐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빌 데 없어라

<제4수>

내 나히 만커니 쓰나 머리도 세거니 쓰나  
 소년시(少年時) 먹음은 초성 아니 늘건노라  
 일일에 아희(兒戲)를 하니 잊는 줄을 모른다

<제5수>

청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산고수장(山高水長)하니 그 아니 좋을쏘냐  
 산수 간 일한인(一閭人) 되어 허물 없이 사노라

<제5수>

- 이중경, 「어부별곡」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74p]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매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포자(單瓢子)로 천리 강산 들어가니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琪花  
 瑤草) 난만(爛漫)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시고 도화 만발 점점홍(도桃花滿  
 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산춘(漁舟逐水愛山春)\*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한데 황산곡리 당춘절(黃山  
 谷裏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지어  
 거지 중천 높이 떠서 두 날개 활짝 펴고  
 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 천리 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증암절벽상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르르 저 골 물이 살살  
 열의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저  
 던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 문답하던 기산(箕山) 영수(潁水)가 예  
 아니냐

- 작자 미상, 「유산가」 -

- \* 어주축수 애산춘: 당나라 시인 왕유가 지은 「도원행」의 한 구절로, '고깃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네.'라는 뜻임.
- \* 양류세지 사사록한데 황산곡리 당춘절: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른데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남.
- \* 연명오류: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인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쓴 진(晉)나라의 문인 도연명이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은 것을 가리킴.
- \* 소부 허유: 고대 중국 요임금 때 기산 영수에서 은거하던 이들의 이름. 허유는 요임금이 천하를 주겠다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강물에 귀를 씻었고, 소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귀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였음.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75p]

남자로 세상에 나서 속절없이 늙어가니  
 할 일이 전혀 없어 명승지를 찾아보니  
 백석탄 돌아드는 풍경이 그지없다  
 속리산 문장대는 눈앞에 벌려 있고  
 십 리의 넓은 물을 좌우로 둘렀으니  
 지세도 좋거니와 경치도 기이하다  
 백옥 같은 바위 위의 푸른 이끼 닦아 내고  
 몇 간의 고운 집을 물 가까이 지어내니  
 동정호 약양루인들 이보다 더하겠나  
 붉은 난간에 기대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은 은축이 되어 있고  
 석봉이 가는 구름 취장이 되었구나  
 사탄\*의 노랫소리 고기 낚는 늙은이오  
 화평에 피리 소리 소 먹이는 아이로다  
 지담\*에 맺는 배는 일엽(一葉)이 가별고  
 물결에 비친 다리 반공(半空)에 무지개로다  
 백암\*에 섰는 단풍 금병(金瓶)을 둘러 있고  
 취벽의 늙은 술은 사시에 푸르렀다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萬壑)이 한 빛일 때  
 청려장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 위의 버들가지 냇가에 푸르렀다  
 일홍을 못 이기어 뉘대를 비껴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은린옥척은 경면(鏡面)에 뛰노는고  
 뉘릿줄에 오른 고기 난간 위에 올려 두고  
 비늘을 굽어내어 넓은 돌에 회 쳐 놓고  
 연잎에 빛은 술을 아이에게 지게 하여  
 표주박에 가득 부어 반취하며 누웠으니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러우랴  
 홍진의 벗님네야 이 생애 웃지 마오  
 일신이 한가하여 고요하게 거니니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삼척오동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 고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맑은 노래 불러내며 묘한 곡조를 화답하니  
 공중에 맺는 소리 신선이 노니는 듯  
 삼신산이 어디인가 무릉도원 여기로다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양 기슭에 피어 있고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조모(朝暮)에 제비하다\*  
 소쇄\*한 정자 속의 매학으로 벗을 삼아  
 연하(煙霞)의 병이 들어 백년을 지내오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世事)도 나 몰라라  
 어느덧 잠들었다 꿈 깨어 일어나서  
 솔바람에 모자 벗고 이리저리 배회하니  
 농부들과 어부들은 옛 약속을 잊지 않고  
 전나귀에 술을 싣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한 잔 먹은 후에 또 한 잔 부어내어  
 꽃 꺾어 썸을 하며 크게 취해 노니오니  
 이 밖의 세상 영욕은 뜬구름으로 여기노라

- 신교, 「백석정별곡」 -

- \* 사탄: 모래사장가의 여울. 또는 모래가 깔린 여울.
- \* 지담: 향기로운 풀이 피어 있는 맑은 연못.
- \* 백암: 흰 바위.
- \* 낙하: 낮게 드리운 저녁노을.
- \* 제비하다: 나란히 날다.
- \* 소쇄: 맑고 시원한 모양.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78p]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려 있으니	成敗關天運
모름지기 의로 돌아가야 한다	須看義與歸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을망정	雖然反夙暮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야 입을쏘냐	未可倒裳衣
권*은 혹 어진 이도 그르칠 수 있으나	權或賢猶誤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	經應衆莫違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말하노니	奇言明理士
급한 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	造次慎衡機

- 김상헌 -

\* 권(權): 권도(權道).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행동의 기준을 변동할 수 있다는 입장. '권'은 저울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쓴 방편 등을 의미함.

\* 경(經): 경도(徑道). 도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다는 입장. 여기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또는 기준 등을 의미함.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78p]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靜處觀群動
진실로 원만한 귀결을 지을 수 있다	眞成爛漫歸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요	湯水俱是水
털옷도 삼베옷도 옷 아닌 것 없으니	裘褐莫非衣
일이 어찌다가 때를 따라 다름망정	事或歸時別
속마음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	心寧與道違
그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君能惜斯道
말함도 침묵함도 각기 천기*로세	語默各天機

- 최명길 -

\* 천기(天機): 하늘의 이치, 하늘이 내려 준 성질.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78p]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下馬問人居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婦女出門看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坐客茅屋下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爲我具飯餐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丈夫亦何在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扶犁朝上山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山田苦難耕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日晚猶未還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四顧絕無隣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鷄犬依層巒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	中林多猛虎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採藿不盈盤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다고	哀此獨何好
척박한 두메산골 산단 말인가	崎嶇山谷間
편안할사 저 너머 평지의 생활	樂哉彼平土
가고파도 고을 관리 너무 무서워	欲往畏縣官

- 김창협, 「산민」 -

[26-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244p]

구경 가세 구경 가세 함강정에 구경 가세  
 때는 구월 이십삼일 길일인가 명절인가  
 순시(巡視) 나온 우리 감사 이날에 뱃놀이하니  
 천추절 성절일\* 즐거우나 창오산 저녁 구름 슬프도다  
 관찰사 부임 뜻밖이나 남쪽 백성 괴로움 내 알쏭가  
 뱃놀이 좋을시고 가을같이 급함을 생각하라  
 돌을 깨서 강 막는 데 한 달이나 걸렸구나  
 산을 뚫어 길 낼 때에 민가 무덤 옮겼구나  
 울부짖는 저 귀신아 풍경 좋은 탓이로다  
 범 같은 우리 감사 조금도 원망 마라  
 음식 거마(車馬) 장막 온갖 채비 밤낮으로 준비하고  
 큰 물고기 낚아내어 배 안에서 요리하네  
 응향각을 숙소 삼고 세여울서 배를 탄다  
 물 가운데 떠내려가니 강산도 좋을시고  
 감사에겐 풍류요 백성에겐 원수로다  
 인간 세상에 남은 액운(厄運) 물나라에 미쳤도다  
 오 리 밖 기회정에 술과 고기 낭자하네  
 여러 고을 관리가 대접한 것이라 백성의 피와 기름 아닌가  
 다과상의 수파련(壽瓊蓮)은  
 시골구석 어리석은 백성들은 처음 봄이라  
 기이하고 화려하구나  
 한 상을 차리는데 백금(百金)이나 들었는가  
 백성 원망 하늘을 찢었으며  
 풍악(風樂) 소리 땅을 움직이네  
 하루 종일 놀기도 부족하여  
 촛불 밝혀 밤까지 논다는 말인가  
 관술불을 켜 두고 산골 백성 일 시키니  
 물과 물이 함께 맑게 빛나누나  
 적벽강에 연환선(連環船)을 띄어 놓고  
 주유가 지른 불이런가  
 돛자리마다 등불을 내어 거니  
 십 리의 강 위가 꽃밭이라  
 삼경 달밤 거의 다 지나갈 제  
 응향각에 돌아오니  
 먼 길 이어 밝힌 횃불  
 백성들을 동원하여 불을 들게 했던 말인가  
 기괘와 절월을 앞세우고  
 아전과 장교들은 뒤따르게 할 적에  
 아리따운 담양의 기생들은  
 무슨 명을 받았는지  
 오수의 역마를 빗겨 타고  
 의기양양 하는구나

- 작자 미상, 「함강정가」 -

\* 성절일: 중국 황제와 황후의 생일.

[26-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44p]

약지 못한 함열현감  
 공갈은 무슨 일인가  
 높은 분의 명을 받은 수령님들  
 누구누구 와 계신가  
 벌써 나이 칠십 되신 능성 원님  
 백 리 밖에서 말 달리듯 숨 가쁘고  
 남원부사, 순창군수  
 음식 맡은 벼슬인 양 준비하기 골물한다  
 담양부사, 창평현감  
 기생을 데려오려 부지런하다  
 좌친당한 나주목사  
 아침하러 와 계신가  
 명가의 후예인 남평현감  
 큰 뜻 품고 바람처럼 따라오니 무슨 일인가  
 저들 조부 높은 풍채 생각하면  
 산림에 남긴 수치 부끄럽기 그지없다  
 임실현감, 곡성태수  
 지나치게 아침함을 사양할까  
 익산군수, 전주판관  
 몸 흔들며 아양 떨며 웃는 모습 보기 싫다  
 애잔하네, 화순의 옥과 수령  
 따를 마음 먹었으나 뒤 처졌다  
 맑은 강에 다음으로 남았구나  
 내일은 어디 가나 묻지 마소  
 오고 가는 벼슬아치 서로를 바라보니  
 길 위에 분주한 이 몇 천인가  
 흥수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은  
 가을건이 부족함을 채워 줄까 해서인데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폐단 있네  
 무는 재해도 감했는데 목화밭이야 거론할까  
 백 묘(畝)나 되는 벌건 땅에 백지징세(白地徵稅)\* 하는구나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  
 불쌍한 백성 논밭에다 좁은 길 넓히란다  
 각 읍 관리 독촉하니 채찍 몽둥이 낭자하다  
 허다한 관인들이 대호(大戶) 소호(小戶)에 분담시켜  
 사망 부근 십 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하네  
 부자는 괜찮지만 가련한 이 가난한 자로다  
 해는 기울고 이정은 저녁밥 재촉할 때  
 텅 빈 부엌에서 우는 아낙 발 구르며 하는 말이  
 방아팜에 얻은 양식 한두 되 있건마는  
 채소도 있건마는 그릇은 누구에게 빌릴꼬  
 앞뒷집 돌아보니 선달그름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 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  
 대호에는 한 냥 넘고 소호에도 육칠 전이라  
 이 놀이 다시 하면 이 백성 못 살겠네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 하여  
 편안히 지내더니 하릴없이 떠도네

한 사람의 호사(豪奢)가 몇 사람의 난리 되고  
 집과 논밭 다 팔고서 어디로 가잔 말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하시어 비추소서 비  
 추소서  
 소문에 들리기를 아진 향원(鄉員) 벌한다기에  
 간악한 이 벌하는가 여겼더니 음식과 도로 닷하는구나  
 노예 차출 무슨 일이고 순령수\*의 권세로다  
 음식은 넘쳐 나고 뇌물은 공공연히 오고 가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상평통보 좋을시고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네  
 춘당대에 치는 장막 오목대에 무슨 일이고  
 참람한 과거장서 제주 겨루는 유생들아  
 오십삼 주 시향 예향에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단 말인가  
 먹을 복 좋은 우리 감사 출세 운 좋은 우리 감사  
 들어오시면 육조 판서 나가시면 팔도 감사  
 공명도 기록하고 부귀도 그지없다  
 망극하도다 나라 은혜어 감격스럽다 임금님 은혜어  
 한 토막 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리라  
 배은망덕하게 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

- 작자 미상, 「합강정가」 -

- \* 백지징세: 수확이 없어 세금을 면제받아야 할 땅에 억지로 세금을 매기는 일.
- \* 선달그름에 시루 빌리는 격: 어느 집이나 시루를 사용하는 선달그름에 남의 집으로 시루를 얻으려 다닌다는 뜻으로, 되지도 않은 일에 애쓰는 것을 말함.
- \* 순령수: 대장의 전령과 호위를 맡고, 순시기·영기(令旗) 따위를 받들던 군사.

[27-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50p]

아해야 들어 보라 내일이 신행이라  
 네 마음 어떠하며 이 삼사 갈밭\*없어  
 우마에 짐을 싣고 금반\*을 굳게 매어  
 친정을 하직하고 시가로 들어가니  
 부모께 떠날 적에 경계할 말 많고 많다  
 문밖에 사관할 제 세수를 일찍 하고  
 문밖에서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방이나 덤사온가 잠이나 편하신가  
 살뜰히 물을 적에 저근덧 앉았다가  
 가만히 돌아 나와 진지를 차릴 적에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 하고  
 꿏어앉아 진지하고 식상을 물힌 후에  
 할 일을 사뢰 보아 다른 일 없다시면  
 내 방에 돌아 나와 일손을 바빠 들어  
 흥돈흥돈\* 하지 말고 지낙자낙\* 하여서라  
 저녁에 이르게 되거든 아침과 같이 하고  
 어스름에 이르게 되거든 새벽과 같이 하고  
 어디로 누우실지 자세히 살피 보라  
 이부자리 정결하게 펴 드리고  
 자리를 편하게 하여 부모님 근력을 살피 보고  
 부모님 말씀을 받들되 구태여 말리시면  
 가만히 앉았다가 절하고 돌아서 나오거라  
 등불 촛불 돋우고 할 일을 생각하고  
 책을 보나 일을 하나 이윽히 앉았다가  
 밤 되거든 잘 것이라  
 부모님 병 들거든 뒷수발을 더욱 하되  
 집안 사람 많더라도 중에게 맡겨 두지 말 것이며  
 삶거나 끓이는 음식은 친히 하며 탕약도 손수 달이거라  
 병세를 보아 가며 미음을 자주자주 권하고  
 누우시거나 앉으실 적에 살손\*으로 부축하고  
 소매로 바칠 적엔 옛날처럼 하지 마라  
 송나라의 효부 진씨는 시어머님이 이가 빠져  
 제대로 진지를 못 드시는지라 젓을 먹여 효도로써 봉양하고  
 당나라의 효부 노씨는 도적이 밤에 드니  
 시어머님 끌어안고 도피하지 않았느니라  
 이같이 장한 일을 너희도 하거라  
 다른 일 다 던지고 온화하고 양순한 게 제일이라  
 부모님을 효도로써 봉양할 제  
 아홉 번을 살피기를 오직 혼자 맡으리니  
 배고플 때 없게 하고 추우실 때 없게 하라  
 말 한 마디 공손하지 못하면 불효라 이르리라  
 아버지가 시키신 일은 아버지께 싫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말린 일은 아버지와 겨루려 하지 말지어다  
 부모님이 꾸중을 하시거든 엎드려 감수하고  
 아무리 옳다고 여기어도 변명을 바쁘게 하지 마라  
 핑계하는 말들을 바빠 하면 부모님의 역정만 피어날 것이라  
 낮빛을 보아 가며 노기가 풀린 후에

조용히 나와 앉아 차례로 말씀을 올리며  
 부모님 웃으시고 용서를 하시리라

- 작자 미상, 「계녀가」 -

- \* 갈밭 : 어디에 머물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
- \* 금반 : 물건을 매는 줄.
- \* 흥돈흥돈 : 두서없이.
- \* 지낙자낙 : 침착하게.
- \* 살손 : 어떤 일을 정성껏 하는 손.

[27-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50p]

아해야 들어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지아비는 하늘이라 하늘같이 중한 이라  
 말마다 조심하고 일마다 공경하며  
 친하다고 아단스럽게 굴지 말고 미덥다 방심하지 말아라  
 한 뻬\*에 옷을 같이 걸지 말고  
 내외를 구별하되 서운하게 하지는 말아라  
 짝으로 살아가는 저구\*는 날짐승이나 가까이 하지 않고  
 연리지\*는 초목이나 낮이 되면 풀리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분별이 없겠는가  
 각결\*이 받을 매니 그 아내 점심을 내가고  
 발가에서 마주 앉아 손님같이 대접하니  
 깨끗하게 모시게 될지라도 공경함을 그만둘 손가  
 지아비에게 학업을 권면하고 나태하게 하지 말아라  
 잠자리에 너무 흘러 음란하게 지내지는 말아라  
 투기를 과하게 하면 집안이 어지럽게 될 것이라  
 지아비가 맡은 일을 지어미가 간여 말고  
 지어미가 해야 할 일을 지아비에게 미루지 마라  
 아버지가 꾸중을 하시거든 황공하게 받아들이고  
 가장이 꾸중을 하거든 웃으면서 대답하라  
 웃으면서 대답하되 공경함이 부족한 이들은  
 부부간을 불작시면 화목하기가 심란하도다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할 말이 한 마디 있느니라  
 부모와 지아비는 인정이 지극하여  
 허물이 있다 해도 내리사랑으로 보던 이라  
 그중에 어렵기는 동생과 가까운 친척이라  
 재물을 시샘하면 동생과 불화 되고  
 언어를 잘못하면 친척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 아니 두려우니 그 아니 조심할까  
 베 한 자를 끊어 내어 동생과 나누어 입거라  
 콩 한 말 갈라 내어 동생과 나누어 먹어라  
 친척은 오른쪽 날개이니 오른쪽 날개 없이 어이 살리  
 무사히 있을 때는 남 보듯 하거니와  
 급한 때 당하게 되면 가까운 친척 밖에 또 있는가  
 가난한지 부유한지 헤지 말고 어두운지 밝은지를 보지 마라  
 옷가지가 없을 때는 말없이 내어주어라  
 음식을 나눌 적엔 그릇에 구멍 내어 주지 마라

- 작자 미상, 「계녀가」 -

- \* 뻬: 옷을 걸 수 있게 만든 막대.
- \* 저구: 물수리.
- \* 연리지: 두 나뭇가지가 맞닿아 결이 서로 통한 것으로, 부부간의 화목함을 이룸.
- \* 각결: 춘추시대 진나라 사람. 받을 땀 때 아내가 점심밥을 공경하여 받들기를 높은 손님 대접하듯 하니, 귀한 손이 지나가다가 각 결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함.

[27-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록 250p]

아해야 들어 보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맞이함은 부녀자의 큰 일이라  
 제사를 모시게 되거든 각별히 조심하여  
 의복을 갈아 입고 제사 음식을 정결하게 하여라  
 각 방과 마루를 깨끗이 청소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걸 엄금하라  
 제사 쌀을 씻을 적엔 회게 되도록 다시 씻고  
 제사 음식 씻을 적엔 티 없이 다시 씻어라  
 웃음을 크게 마라 누가 흉을 보느니라  
 비질을 바빠 마라 먼지가 나느니라 검불나무 때지 마라  
 아이들이 보채어도 먼저 제사 음식 떼어 주지 말고  
 종들에게 죄 있어도 매질로 바람을 내지 마라  
 제사 술을 맑게 띄우고 제편\*을 정결하게 괴고  
 정신을 차려 가며 제사 차례를 잊지 마라  
 의복을 풀지 말고 등잔불과 촛불을 끄지 말고  
 곳곳하게 앉았다가 닭 울기를 기다렸다가  
 제사를 일찍 하고 음복을 한 후에  
 음식을 고루 나눠 원망 없이 하게 하라  
 제사를 받들도 하려니와 손님을 맞이함도 잘 하여라  
 손님이 오시거든 시키는 일 더욱 잘 하여  
 이웃에서 빌려 오더라도 없다고 핑계 말고  
 소리를 크게 하여 초당\*에서 말 듣도록 하지 마라  
 반찬 감을 친히 하여 종에게 맡겨 두지 말고  
 반상을 닦고 닦고 그릇들을 씻고 씻고  
 밥그릇을 훑게 말고 국그릇을 식게 마라  
 반찬을 놓을 적에 제 자리 알아서 놓아두어라  
 이전에 도간 어미 머리털을 베어 내어  
 손님을 대접하니 이같이 하여라  
 음식이 불결하여 손님이 안 드시면 주인이 무안하고  
 안에서 꺼리는 소리가 나느니라

- 작자 미상, 「계녀가」 -

\* 제편: 제사상에 올리는 떡.

\* 초당: 사랑방.

[27-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50p]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자식을 가르치고 길러냄은 장래에 할 일이라  
 미리 이것을 가르치면 너무 이르게 말하는 듯 하구나  
 수태를 하거들랑 각별히 조심하여  
 음탕한 소리를 듣지 말고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말고  
 베개와 이불을 바로 하고 음식을 정결히 먹고  
 기울게 서지 말고 그릇되게 눕지 마라  
 열 달을 이리하여 자식을 낳게 되면  
 얼굴이 단정하고 총명이 더하니라  
 문왕의 어머니가 문왕을 수태했을 제  
 이같이 하였으니 본받을지 하느니라  
 두세 살 먹은 후에 지각이 들거들랑  
 장난을 절금하고 음식을 존질하고  
 명주옷 입게 말고 새 소음 놓지 말고  
 썩은 음식 주지 말고 상한 고기 먹지 말고  
 밋다고 과장 주어 정신없게 하지 말고  
 맹자의 어마임도 맹자를 기르실 제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곁에 사시고  
 이웃에 돼지 잡거늘 너 먹인다 속이시고  
 도로혀 후회하여 사다가 먹이신다  
 너희도 이것 보와 속이지 말아서라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노비는 수족이라 수족 없이 어이 살며  
 더위에 농사지어 상전을 봉양하며  
 추위에 물을 끼려 상전을 공양함이  
 그 아니 불쌍하며 그 아니 귀찮은가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  
 꾸짖어도 악언 말고 치나마 과장 말고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  
 나이 많은 종이거든 언어를 삼가고  
 어린 종이거든 자식같이 길러서라  
 제때에 해 입히고 배품게 말아서라  
 아해야 들어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제가를 하온 후에 치산을 하여서라  
 곡식이 많으나마 입치레하지 말고  
 포백이 많으나마 몸치장하지 말고  
 현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어서라  
 집 안은 자주 쓸되 문지 앉게 말아서라  
 기명을 알아 놓아 닭과 개가 깨게 말아  
 이웃을 왕래할 제 무릎을 쓰고 가고  
 급한 일 아니거든 밤으로 왕래 말고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 조심하여서라  
 웃음을 과이하여 이뿌리 나게 말고  
 옷귀를 매게 하여 속웃을 나게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집 내지 말아  
 인물을 평론 말고 양반을 고하 말고  
 부귀를 흠선 말고 음식을 욕심 말아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남의 집 처음 갈 때는 조심이 많건마는  
 세월이 많아가면 홀만키기 쉬우려니  
 처음의 가진 마음 늙도록 변치 마라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대강으로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하니  
 이 책을 잃지 말고 시시로 내어 보며  
 행신과 처세할 제 유익하게 되었으라  
 그밖에 경계할 말 무수히 있다만은  
 정신이 아득하여 이만하여 그치노라

- 작자 미상, 「계녀가」 -

\* 기수: 순서, 차례.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261p]

엇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  
 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이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삼오(三五) 이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훗날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일이 날 필소냐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이서  
 백마(白馬)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문  
 열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곶은비는 무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굽이굽이 끊쳤세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지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  
 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세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야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 \* 삼생: 전생(前生), 현생(現生), 내생(來生)인 과거세, 현재세, 미래 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월하: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이. 중국 당나라의 위고(韋固)가 달밤에 어떤 노인을 만나 장래의 아내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데서 유래함.
- \* 다시: 시기(猜忌)가 많음.
- \* 면목가증: 얼굴 생김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태가 있음.
- \* 백마금편: 흰말과 금 채찍. 사내의 호사스러운 기마 풍류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 \* 약수: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29-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67p]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저 아이야  
 인간 영육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생 백 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  
 삼만 육천 일을 다 살아도 덧없거늘  
 하물며 장수 단명이 운명이어니 사생(死生)을 정할쏘나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산 백골이 그 아니 느껴우나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死日)은 무궁하니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하여 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시경 서경 백가어를 날날이 외워내어  
 공자 맹자 안회 증자 일마다 본받아서  
 직설이 되기를 기약하고 요순과 비슷해져  
 강구연월에 태평가를 부르면서  
 사방팔방을 태평성대로 만들어 두고  
 환과고독에게 은혜를 베풀며  
 손무와 오기를 아이 보듯 하니 위청과 광거병은 관심이나  
 두겠는가  
 만마천병 지휘하여 풍운을 부쳐 내어 우주를 흔들리라  
 천산에 활을 걸고 한해를 뛰어 건너  
 긴 칼 빼내어 푸른 하늘 도움 받아  
 온갖 오랑캐 다 몰아 내친 후에  
 커다란 대장인을 허리 아래 비껴 차고  
 능연각에 초상 걸고 진수성찬 누리리라  
 내 재주 알고 줍아 장수 재상 못 되어도  
 혼탁한 세상 초탈한 사나이냐 되리라  
 글재주 뛰어난데 온갖 책 읽어 두고  
 아름다운 경치를 장난삼아 읊으니  
 난조 봉황 내려오는 듯 거북용이 춤추는 듯  
 상서로운 빛 받은 듯 상서로운 기운 띠는 듯  
 광채가 찬란하며 변화가 무궁하여 강이 서로 뒤트는 듯  
 한밤중 밝은 달과 산호 같은 흰 옥이 첩첩이 쌓인 듯  
 아황과 여영이 금슬을 원망하는 듯  
 농옥과 왕자진이 백옥 통소 부는 듯  
 서른여섯 상제와 천상의 신선들이  
 천상 음악을 십이루에 벌인 듯  
 아름다운 궁궐에서 성인을 모시고 있어  
 도성에 이름나니 임금님 총애 그지없다  
 구중궁궐에서 문한직을 누리다가  
 그 글이 보존되어 만고에 전해지면  
 소 먹이는 저 아이야 그 아니 즐거우냐

- 임유후, 「목동가」 -

[29-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267p]

이 세 일로 떨친 후엔 할일이 전혀 없다  
 하늘이 사람 낼 때 쓰지 않는 이 없으며  
 나라에서 사람 쓸 때 귀천을 보지 않으니  
 하늘이 내신 이내 몸이 덕행 닦으면 사군자 되고 던져두면  
 하우\* 된다  
 내 재주 갖고서 내 한 몸만 뛰어나고자 하면  
 재능이 있는데도 나라 위해 쓰지 않음이니 세상 사람 누가  
 알겠는가  
 자세히 들어봐라 손꼽아 이르러라  
 이윤이 솔을 지고 부열은 달구 들고 강태공이 낚시 들며  
 영척과 백리해는 소치기로 늪었으니  
 고생스럽고 천하기가 이 사람들만 할까마는  
 탕왕이 예물 보내고 고종이 꿈을 꾸고  
 강태공이 목야에서 위엄을 떨치고  
 백석가 그치고 양가죽 다섯 장에 팔려가니  
 빈궁과 영달이 귀천을 따지겠는가  
 어와 저 아이야 이 말을 들었는가  
 성군 만나기 바라는가 뛰어난 재주 가졌는가  
 시절 운수가 그렇더냐 부귀를 꺼리느냐  
 생각지도 못한 사이 세상일을 버렸는가  
 입신양명을 남의 것처럼 던져두고  
 궁벽한 시골에서 오락가락하는가  
 어와 그 뉘신고 그 어떤 사람인고  
 형용이 초췌하니 초나라 대부 굴원이신가  
 잔흔이 영락하니 학사 유자후이신가\*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으신가  
 발끝으로 서서니 어디를 보시는가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  
 해 질 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히 서 있어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시는고  
 영락(榮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재천(在天)이라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꼬  
 천생만물(天生萬物)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大道)를 몰라도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어느리라  
 송아지 어미 좇아 녹음간에 절로 놓여  
 푸성귀 뜯어 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맘대로 다니기와  
 코뚜레 코에 끼고 긴 고삐 굳게 매어  
 곤 콩대 삶은 콩을 배까지 찰지라도  
 불 같은 여름벌에 큰 쟁기 마주 매어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불작시면  
 어느 것이 한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고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犧牲)\*만 할까마는  
 현 덕선 물리치고 비단 거적 가로 덮고  
 밧줄 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엮어내어  
 예관(禮官)이 고삐 들고 태묘(太廟)로 몰아가서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흠어지니  
 저더러 물어보면 어느 소 되려 할꼬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니

- 임유후, 「목동가」 -

\* 하우: 아주 어리석고 못남. 또는 그런 사람.

\* 형용이~유자후이신가: 굴원, 유자후는 귀양 가서 세상을 근심하  
 다가 죽은 중국의 옛 문인으로 근심 많아 보이는 상대방을 그  
 둘에 빗댄.

\* 희생: 천지신명 따위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29-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67p]

고금에 어질기는 공자 맹자 만한 이 있을까만  
 광인에게 포위되호 진채 사람에게 액을 당하시며  
 다섯 나라 성안에서 목탁이 되셨으니  
 막대 박고 발 갈던 이 그가 옳지 않던가  
 원수를 갚은 후에 나라가 편해지니  
 부차의 축무검을 오자서에게 주었던 말인가  
 충성이 적었던가 공적이 없었던가  
 상채 동문 밖에서 누런 개를 탄식함을 무슨 일인고  
 토끼를 다 잡으니 사냥개 삶기더라  
 한신은 무슨 죄로 삼족이 멸망했으며  
 백기는 어찌하여 무안군도 못 지냈고  
 예로부터 문인은 모두 다 박명하데  
 이백 두보의 문장 만 길 되는 광채 뿔을 만하건만  
 유명세 치르던 이백은 야랑으로 귀양 가고  
 두보는 성도 초당에서 고초를 겪었네  
 바다 같은 문장이 세상에 또 있는가  
 동정호 봄바람에 물결이 일어나니  
 조주에서 팔천 리 고향도 멀구나  
 문장이 옥 같았으니 글이나 못하든지  
 시골 벼슬살이 십이 년에도 형벌이 남았는가  
 강변 갈림길에서 눈물이 그지없다  
 미산의 초목은 누굴 위해 시드느고  
 마음과 연잎으로 옷을 짓고 난초를 얹어 차고  
 이소 구장의 문장이야 월까마는  
 세상에 홀로 깨어 있어 못가로 쫓겨났으니  
 황혼이 찾아온들 미인이 오던가  
 산중에 사향노루 깊이 숨어 있건마는  
 봄바람이 야단스러워 향내를 불어내니  
 사냥꾼 날쌔 화살 피하기도 어려운데  
 미끼 단 낚시를 어찌하여 다루느고  
 인생이 꿈이니 험한들 상관할까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면  
 만고에 깨달은 이 몇이나 되겠는가  
 영천에서 귀 췌기니 상류에서 소 먹이기  
 어떠한는지 내 노래 들어보소  
 한 곡조 부르리라 서울이 어디인가  
 구름이 험하구나 산빛이 어두우니  
 석양이 가깝구나 공명을 뉘 알더냐  
 부귀빈천 나는 모르네 도롱이 추켜 입고  
 통소를 비껴 잡아  
 소 등에 비스듬히 타고 술집으로 향하노라

- 임유후, 「목동가」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68p]

청풍(淸風)을 좋아 여겨 창을 아니 닫았노라  
 명월(明月)을 좋아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제1수>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爵祿)\*을 마음에 돌꼬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  
 어젯밤 손수 담은 문을 늦도록 닫치었소

<제2수>

상(床) 위에 책(冊)을 노코 아래 신을 내여라  
 이바 아해야 날 보리 그 뒤고  
 알겠다 어제 맞춘 므지술 맛보러 왔나보다

<제3수>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없다  
 나는 내 집에 내 세간을 살펴보니  
 우습다 뉘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제4수>

산(山)아 너는 어이 한결같이 높았으며  
 물아 너는 어찌 나날이 흐르느냐  
 처간(處間)에 인지(仁智)한 군자는 못내 즐겨 하노니라

<제5수>

오두미\* 위하여 홍진(紅塵)\*에 나아가지 마라  
 바람 비 어지러워 칼과 톱이 무서워라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기구하다 기로다단(岐路多端)\*하여라

<제6수>

- 이정, 「풍계육가」 -

- \* 작록: 관직(관직과 작위)과 녹봉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오두미: 다섯 말의 쌀이라는 뜻으로,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이르는 말. 중국의 도연명이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여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데서 유래함.
-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 기로다단: 갈림길의 갈래가 많음.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록 308p]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뛰집을 짓는다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찢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것이 있으랴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입이 온들 반가움이 이려하랴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제3수>

그 누가 삼공(三公)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사 생각하니 소부(巢父) 허유(許由) 낙똥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제4수>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앞서서서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江山)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나이다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흥」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록 335p]

보고 싶네 보고 싶네 임의 얼굴 보고 싶네  
 인생이 생겨날 때 이목구비 같건마는  
 천만 사람 누구를 알리 다시 못 볼 임이로다  
 무심하다 저 여자야 가련하다 이내 청춘  
 임 못 봐서 병이 되고 임 못 잊어 원수로다  
 첩첩한 이내 시름 골수에 젖었으니  
 식불감미하고 침불안석이라  
 답답한 이내 생각 임 못 본 탓이로다  
 나는 홀로 병이 들어 다만 한숨뿐이로다  
 아무리 허사인들 무단히 잊을까  
 임 생각하고 지는 눈물 베개 아래 소(沼)이로다  
 나 죽은 무덤 위에 내가 나를 찾아오며  
 너 죽은 무덤 위에 내가 너를 찾아가라  
 네 한 몸 위하여서 만사가 뜻이 없네  
 이내 몸 죽어지면 언제 다시 생각할까  
 일신이 천금보니 그 아니 가석한가  
 열너 정절 본받으면 천만년을 살 것인가  
 임아 임아 각시님아 나의 목숨 살려 주소  
 화무십일홍이요 세무십년리라  
 이내 경상 돌아보소 이내 심정 가련하오  
 너로 하여금 든 병이니 한 번 사정 허하여라  
 목석이 아니거든 인정조차 없겠는가  
 이런 일 생각하니 눈에 암암 귀에 쟁쟁  
 상사불견하던 몸이 황천객이 되리로다

- 작자 미상 -

- \* 식불감미: 근심과 걱정으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음.
- \* 침불안석(寢不安席): 걱정이 많아서 잠자리에 들어도 편안히 잠 들지 못함.
- \* 천금보(千金寶): 천금과 같이 소중한 보배.
- \* 가석(可惜): 애뜻하고 아깝고 가엾은 것.
- \*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성하면 반드시 머지않아 쇠퇴함을 이르는 말.
- \* 세무십년리(勢無十年利):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십 년을 가지 못함.
- \* 경상(景狀): 좋지 못한 물골.
- \* 상사불견(相思不見):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함.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335p]

임 그린 상사몽이 실솔의 뉘이 되어  
추야장(秋夜長)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잇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 박효관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61p]

기러기 한 소리에 맑은 서리 물들이고  
 산빛이 변하여 금수로 꾸몄으니  
 곡구암 반타암이 그림 되어 동구에 잠겨 있다  
 밝은 달이 떠올라 소나무에 비추거든  
 거문고 가로안고 난간에 기대니  
 깃옷 입은 손님은 다 나를 찾아와 눈에 가득 보이도다  
 세모에 날씨 차고 온 산에 눈 덮이니  
 인적은 끊어지고 우는 새도 없는 때에  
 언덕과 골짜기는 백옥 궁궐, 경요굴이 되었거늘

- 김득연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48p]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신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한다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리라

- 충담사 -